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

“자율도서정가협의회 구성해 가격안정·가치경쟁 노력”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업계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출판유통업계는 지난 11월 19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자율협약식을 열고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입장과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합의 이행 사항 등을 발표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출판시장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계기”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책값이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출판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대행은 “현재 소비자들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참고서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아직 협의 중이며, 단행본 가격 인하는 출판사의 총매출 감소 문제가 얽혀 있어 앞으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세상의 큰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만큼 의미 있는 시작으로 봐 달라. 과도한 할인으로 그

간 갈등을 빚어온 범출판계가 경쟁보다 상생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 국민독서 확대를 이끌어낸다면, 책 읽는 대한민국을 창출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작은 합의나마 이뤄낸 것이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관심 속에서 논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6개항 9조 세부 지침 포함

자율협약서는 ▲양질의 도서 보급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해 국민 독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 ▲출판계는 가격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가격 재조정을 하고, 유통계는 출판

계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도서 가격의 안정화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권 확장과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일물일가 판매 정책 등을 통한 지역서점 살리기 ▲국민의 독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범사회적 독서진흥 운동 전개 ▲지식과 문화의 척도인 책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통한 문화수준 향상 노력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이 출판사, 유통사,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동 노력 등 총 6개항으로 구성됐으며, 9조의 세부 지침이 포함됐다.

한편, 출판 유통업계는 도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출판 및 유통 분야 종사자,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해 앞으로 책값에 관련한 세부 운영사항은 협의 기구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